

##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부침과 계급적 지지기반 변화\*

조 돈 문\*\*

사민당은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지지율 급락으로 패배한 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게 되었지만, 지지율은 0.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최대 당원규모와 최고 득표율의 정당지위를 상실한 적은 없지만, 노조조직을 하락과 LO-사민당의 갈등 등 노동계급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표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율과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네 차례 총선을 대상으로 실시된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노동계급이 가장 높은 반면, 자본가와 농민 등 소유계급 구성원들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급투표 현상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LO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계

\* 본 연구는 201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스웨덴 총선 출구조사 VALU(Vallokalundersökning riksdagsvalet) 1998, 2002, 2006, 2010, 2014 자료의 분석을 허락해준 SND(Svensk Nationell Datatjänst)에 감사를 드리며, 유익한 논평을 주신 세분 논평자와 조교 신다나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급이 사민당의 확고한 계급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노동 계급의 사민당 지지율 하락과 함께 계급투표의 약화 추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계급투표 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쟁점투표는 사회문제와 경제 문제의 양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 국민들은 경제문제보다 사회 문제를 더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수당의 중도화 전략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사민당과 보수당의 정책적 수렴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제에서는 사민당이 여전히 정책역량의 우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사민당의 우위가 보수당의 우위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제문제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는 우파정부가 2008-2009년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상존하며 특히 경제문제의 경우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넷째, 2014년 총선의 핵심 쟁점은 실업문제와 교육문제였는데, 교육문제는 사민당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던 영역으로서 스웨덴의 실망스런 PISA 성적이 공개된 덕분에 우파연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었고, 실업문제 또한 고실업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우파연합 정부의 실패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처럼 2014년 총선이 사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사민당의 지지율 상승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은 향후 사민당의 미래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주제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사민당, 적녹연합, 계급투표, 쟁점투표, 경제투표, 사회투표, 쟁점점유

## 1. 문제의 제기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4년 임기를 확보함으로써 1932년 처음 집권한 이래 86년(1932-2018년) 기간 가운데 69년을 집권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스웨덴 정치체제는 정당비례투표제에 기초한 다당제의 전통을 지켜왔으나, 2006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우파연합을 결성하여 공동 선거운동을 전개한 이래 적녹연합과 우파연합의 양극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양대 블록 체제는 2006년과 2010년 총선을 거치며 구조화되어 2014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우파연합을 단위로 공동 선거운동을 전개한 반면 사민당은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나 적녹연합과 우파연합의 대립구도는 지속되었다.

사민당은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패배하여 우파연합에 권력을 내어준 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했다. 우파연합이 승리했을 경우, 1932년 사민당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3연속 총선 승리와 함께 최장기 연속 집권 기록을 갱신하며 사민당이 구축한 스웨덴 모델에 상당한 위협을 주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대단히 큰 중대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민당의 2014년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안정적 집권 연장과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갖기는 어렵다. 사민당의 지지율은 0.4%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며, 지지율 하락추세가 잠시 중단되었을 뿐 상승세로 반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표 1> 참조). 또한, 사민당 당원 수도 상대적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적 규모에서도 하락세를 지속되고 있다.

&lt;표 1&gt; 2014년 총선 결과와 사민당 당원규모 변화

	총선 득표율(%)	의석수	의석 점유율(%)	당원수	유권자 비율(%)
2002	39.8%	144	41.3%	152,118	2.3%
2006	35.0%	130	37.2%	124,789	1.9%
2010	30.6%	112	32.1%	108,534	1.5%
2014	31.0%	113	32.4%	103,203*	1.4%
<2014 기타정당>					
좌익당	5.7%	21	6.0%		
녹색당	6.9%	25	7.2%		
보수당	23.3%	84	24.1%		
중앙당	6.1%	22	6.3%		
자유당	5.4%	19	5.4%		
기민당	4.6%	16	4.6%		
스웨덴민주당	12.9%	49	14.0%		

\* 당원수는 2011년 기준

물론, 사민당은 1932년 최초 집권 이래 5차례 총선 패배로 실권한 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최대 당원규모와 최고 득표율의 정당 지위는 흔들린 바 없었다. 이러한 스웨덴 사민당의 위력은 LO(Landsorganisationen 스웨덴노총)를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충성심과 계급투표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LO를 포함한 노동조합 조직율의 전반적 하락, 교섭체계 탈중앙집중화와 노동조합의 생산현장 통제력 약화, 사민당원내 LO 조합원 비중의 꾸준한 감퇴, 사민당의 ‘제3의길’ 채택 이래 사민당에 대한 LO 노조원들의 불만과 사민당-LO의 갈등 심화 등 사민당의 계급적 기초, 특히 LO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지지기반의 약화를 우려하게 하는 현상들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sup>1)</sup>

그런 점에서 2006년과 2010년 총선의 연이은 패배와 2014년의 총선승리에

1) Korpi(1978, 1982), Bergström(1991), Sainsbury(1991), Kjellberg(2007), Tsarouhas(2013)을 참조할 것.

감추어진 사민당 지지율의 하락 추세는 사민당의 계급적 지지기반 와해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사민당의 계급적 지지기반이 와해되고 있는지, 노동계급의 지지기반은 여전히 견고한지, 사민당의 지지율과 LO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계급투표는 하락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의 물음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스웨덴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율과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는 2014년 총선 결과 및 선행연구와 이론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지지기반 변화를 설명한 다음,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적 발견들을 정리한다.

## 2. 투표 유형과 2014년 총선

### 2.1. 양대블록 구도와 2006·2010년 총선

스웨덴 정당들은 사회·경제 민주화, 재분배정책, 공공부문의 역할과 국가의 경제 개입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 사민당과 보수당의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연정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유권자들도 사회주의 블록과 부르주아 블록으로 양분되면서 양대블록 사이의 이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런 가운데, 사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중도우파 정치세력의 분열·난립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보수당은 2004년 중앙당, 자유당, 기민당과 함께 ‘Alliance for Sweden(스웨덴을 위한 연합)’을 구성했다. 이렇게 형성된 우파연합이 공동으로 선거공약집을 제작하고 선거전략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공동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2006년 총선부터 우파연합과 적녹연합의 양대 블록 체제가 구조화되었고, 이러한 양대 블록의 대립구도는 2010년 총선과 2014년 총선에서도 계속되었다.<sup>2)</sup>

사민당은 1932년 총선 승리 이래 2006년 총선까지 74년의 기간 동안

1976-82년과 1991-94년을 제외한 65년간 집권했으나, 2006년 총선과 2010년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했다.<sup>3)</sup> 부르주아 정당들은 고질적인 분열상을 극복하고 선거연합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우파연합의 구심점인 보수당도 전통적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도화 전략을 취하는 등 획기적 변신을 시도했다. 보수당은 사민당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생산적 잉여집단의 대변자라고 비판하며 보수당이야말로 노동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노동의 정당’임을 강조했다. 보수당과 우파연합은 스웨덴 모델, 즉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당정도 존중하는 가운데 학교와 병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던 고용과 경제운영 능력 영역에서 사민당의 무능을 지적하며 자신의 수월성을 주장했다.

사민당은 2006년 총선에서 완전고용 달성, 연구지원 증대, 의료비용 감축 등을 강조했다지만, 유권자들은 중도파 정당 이미지를 선택하고 고질적인 분열상을 극복한 보수당과 우파연합을 선택했다. 2010년 총선에서 양대 블록의 정책대안과 선거전략은 2006년 총선과 상당한 연속성을 보여주었는데, 사민당이 복지제도 강화와 균형재정 달성 등 전통적인 사민주의 가치를 부각시켰지만 또다시 패배했다. 2010년 우파연합의 승리는 우파연합 정부가 2008년 후반에 발발한 세계금융위기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사민당이 녹색당에 이어 좌익당과의 연대를 선언하면서 좌익당을 신뢰하지 않는 중간계급 구성원들과 도시 유권자들의 이탈을 자초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양대블록의 형성 및 구조에 대해서는 Bergström(1991: 9-10), Sainsbury(1991: 45-49), Aylott & Bolin(2015: 730-1), Tsarouhas(2013: 355), Hagevi(2015)를 참조할 것.

3) 2006년과 2010년 총선에 대해서는 Stockholm News(2010.8.26), Jolivet & Mantz(2010), Aylott & Bolin(2015: 731-4), Martinsson(2013a: 132; 2013b: 474), Tsarouhas(2013:355-366)을 참조할 것.

## 2.2. 2014년 총선의 쟁점과 결과

2006년과 2010년 총선을 거치며 사민당과 보수당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견인하기 위해 중도수렴하면서 사민당과 보수당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차별성은 크게 완화되었는데, 2014년 총선에서도 양대 정당의 입장과 선거 전략은 상당정도 연속성을 보여주었다.<sup>4)</sup>

우파연합은 2014년 총선에서 우파연합 정부가 실시한 소득세 감면 정책의 성과와 자녀들의 학교 선택권은 사민당이 집권하면 철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스웨덴은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성장 추세를 회복한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지만,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지 않았다.

한편, 사민당은 우파연합 정부가 높은 실업률을 낮추지 못했고, 학교교육의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으며, 실업수당 감축 등 복지 서비스의 공적 지출을 삭감하거나 사유화하며 복지제도를 훼손한 점 등 우파연합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또한 사민당은 실업급여를 증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며 실업률을 감축하고, 우파연합 정부가 훼손한 교육제도와 보건의료 제도도 개혁할 것을 공약했다.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적녹연합이 2014년 총선 승리로 집권했지만 득표율은 2006년과 2010년 득표율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2002년 수준과 비교하면 8.8%나 미달했다(<표 2> 참조). 양대블록의 2014년 득표율을 2002년 득표율과 비교하면 우파블록은 2.1% 하락한 반면 적녹연합은 네 배가 넘는 8.8%나 하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적녹연합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더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2014년 총선에 대해서는 Aftonbladet(2014.7.25), Dagens Arena(2015.5.21), Göteborg Daily(2014.9.1/2), The Local(2014.9.2), SAP(2014), Aylott & Bolin(2015: 732-734), 최연혁 (2015: 5-9), 조돈문(2015)을 참조할 것.

&lt;표 2&gt; 정치블록 및 적녹연합 정당 득표율 변화, 2002-2014

	2002	2006	2010	2014	2002-2014 증감
적녹연합	53.1	43.4	44.0	44.3	-8.8
사민당	36.7	29.8	26.8	27.8	-8.9
좌익당	10.7	7.0	7.3	7.9	-2.8
녹색당	5.7	6.6	9.9	8.6	2.9
중립	6.4	8.1	8.9	17.3	10.9
우파연합	40.5	48.6	47.1	38.4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0

사민당은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지만, 적녹연합을 구성하는 연합 정당들이 득표율을 유지하여 우파연합 정당들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민당의 득표율은 2002년에 비해 8.9% 하락한 반면, 좌익당-녹색당 등 다른 두 연합정당들은 2010년에 이미 17.1%를 득표하여 2002년의 16.4%를 능가했으며 2014년에도 16.5%로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적녹연합의 득표율 하락은 사민당의 득표율 하락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녹연합의 연대 정당들 가운데 좌익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녹색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는데, 이는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두 정당의 지지율 상승-하락 폭이 서로를 상쇄하면서 연대정당들의 합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sup>5)</sup>

5) 좌익당과 녹색당은 2014년 총선에서 여성당에 지지세력 일부를 빼앗겼는데, 사민당에서 이탈하여 여성당으로 이동한 세력은 좌익당과 녹색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여성당이 향후 지지율 상승 추세를 지속하게 되면 연대정당들의 지지율을 감축함으로써 적녹연합의 지지율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보수당도 스웨덴민주당으로 지지자들을 일부 빼앗겼다.

### 2.3. 이론적 쟁점 및 연구방법

스웨덴 총선과 투표행위의 분석에서 이론적 쟁점으로는 계급투표 추세, 경제투표 현상, 쟁점점유론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쟁점은 계급투표 현상의 약화 여부다. 사민당은 1932년 총선 승리로 최초 집권한 이래 총선들에서 연전연승하며 장기 집권했는데, 사민당의 장기집권은 LO를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계급투표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1976년 총선에서 패배하자 사민당 패배의 원인을 계급투표 현상의 약화에서 찾으면서 계급투표 약화 추세 여부가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sup>6)</sup> 1976년과 1979년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뒤 사민당은 1981년 제3의 길 전략을 채택하며 이념적·정책적 변화를 꾀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경쟁력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복지지출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제3의 길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LO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LO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사민당에 대한 충성심은 크게 약화되었고, 그 결과 상당수 LO 노조원들이 사민당을 이탈하면서 LO 조합원의 사민당내 비중은 크게 감축했고 사민당의 득표율 또한 하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급투표 약화 추세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으나, 총선과 투표행위에 대한 경험적 분석들은 계급투표 현상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sup>7)</sup> 계급투표 약화 현상은 청년층과 서비스부문 노동자들에게서 두드러진 반면 고령층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서는 계급투표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노동조건에 따른 계급투표 경향성의 편차도 확인되었는데, 특전적 혹은 주변적 노동자들에 비해 평균적 수준의 핵심적 노동자 집단에서 계급투표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쟁점은 경제투표 강화 추세다. 계급투표 현상의 약화를 지적한 연구

6) 계급투표 현상에 대해서는 Hadenius(1990)과 Blom(1988)을, 계급투표 약화 현상에 대해서는 Bergström(1982: 4; 1991: 12-20), Sainsbury(1991: 34-42), Tsarouhas(2013: 350-358)을 참조할 것.

7) Martinsson(2013b: 472-3), Sainsbury(1991: 45-49), Hadenius(1990: 73-5), 조돈문(1996), 조돈문·신광영(1997)을 참조할 것.

들은 투표행위가 계급위치에 기초한 정체성 투표에서 주요 사회적 의제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쟁점투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쟁점투표의 핵심은 경제투표였다. 경제투표는 정부가 경제운영에 성공하면 집권당에 투표하고 경제운영에 실패하면 야당에 투표한다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보상 혹은 징계 성격의 투표행위를 의미한다. 계급투표가 약화되고 쟁점투표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투표가 중요한 쟁점투표의 한 유형으로 대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스웨덴 총선과 투표행위에 대한 경험적 분석들은 경제투표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과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혼재하고 있다. 실제로 보수당은 경제운영의 실패로 1994년 총선에서 패배했으나 경제운영의 성과로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경제투표 현상의 존재를 확인해 주지만, 사민당이 경제운영에 성공했음에도 1991년 총선과 2006년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경제투표 현상의 유의미함을 부정하는 것이다.<sup>8)</sup>

셋째는 쟁점점유론이다. 쟁점점유론의 논지는 선거에서는 해당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 주요 정당들의 공약과 쟁점화 및 국민여론의 관심 등에 의해 핵심 의제가 형성되는데, 유권자들이 어떤 의제들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경쟁 정당들은 혜택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경쟁 정당들은 자기 정당에 유리한 쟁점들을 핵심적인 선거 의제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게 된다. 이러한 쟁점점유론은 의제점유자 정당이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스웨덴 총선과 투표행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의제에 따라 의제점유자 정당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강한 의제점유의 사례로는 사민당의 사회보장제 의제 점유, 녹색당의 환경 의제 점유, 보수당의 법질서 의제 점유 등에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 정당의 의제점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경제운영과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사민당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는 보수당에 의제점유 정당의 자리를 내어

8) 경제투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Martinsson(2013b: 471-474), Jordahl(2006), Kumlin(2003), Sainsbury(1991)을 참조할 것.

주면서 총선에 패배하기도 했는데, 의제접유자 정당 교체가 가장 빈번한 의제는 경제운영 의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9)</sup>

본 연구는 스웨덴 사민당의 계급적 지지기반을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이론적 쟁점들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 실시된 최근 네 차례 총선의 투표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한 출구조사 자료 VALU(Vallokalundersökning riksdagsvalet) 2002, 2006, 2010, 2014 자료를 사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 투표행위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4개 총선 자료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시기별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VALU 2002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VALU 1998을 활용한다.

### 3.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기반

#### 3.1. 정당 지지 세력의 충성도와 구성 변화

정당 지지자들의 충성도는 정당 안팎의 여건 변화에도 동일 정당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견지하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직전 총선과 동일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을 보면, 사민당이 평균 76.4%로서 가장 높다(<표 3> 참조). 그 다음은 민주당이 두 번째로 높고, 보수당과 여성당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좌익당과 녹색당은 55-58% 수준으로 지지기반의 충성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사민당은 2002년 총선에서 충성도 82.5%로 지난 네차례 총선에서 정당들이 보여준 충성도 가운데 가장 높은 충성도를 기록했다. 사민당은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72-73% 수준으로 하락한 다음 2014년 총선에서 77.6%로 상승하며 민주당과 함께 가장 높은 충성도를 과시했지만, 여전히 2002년 총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9) 의제접유론과 스웨덴의 경험적 분석에 대해서는 Martinsson(2013a), Tsarouhas(2013) 등을 참조할 것.

&lt;표 3&gt; 직전 총선 지지자들의 동일정당 지지율(%)

	2002	2006	2010	2014	평균
사민당	82.5	72.4	73.0	77.6	76.38
좌익당	60.6	52.3	61.7	56.6	57.80
녹색당	56.8	54.6	61.4	49.6	55.60
보수당	59.3	81.9	73.1	62.8	69.28
중앙당	64.2	64.3	55.6	54.7	59.70
자유당	72.0	41.5	48.7	43.2	51.35
기민당	57.2	57.7	59.8	57.6	58.08
민주당	-	-	66.0	78.3	72.15
여성당	-	-	-	68.9	68.90

총선에 연이어 사민당에 투표하는 사민당 핵심은 2002년 이래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9.3%나 감소했는데, 2014년 총선에서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일단 중단되었을 뿐 증가추세로 바뀌지는 않았다(<표 4> 참조). 사민당 핵심은 아니지만 적녹동맹을 꾸준히 지지하는 적녹 핵심 세력은 약간의 부침을 겪은 뒤 2010년과 2014년 총선에서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적녹연합 합류 세력과 이탈 세력은 각각 10.3%와 7.4%로 변화폭이 그리 크지 않다. 반면 적녹연합 참여를 거부하는 세력은 2002년에 비해 8% 정도 증가했다. 현재 사민당 핵심, 적녹연합 핵심, 적녹연합 합류 세력과 이탈 세력은 지난 2010년 총선과 2014년 총선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기적 평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적녹연합의 지지기반은 2002년의 43%에 비해 9% 정도 위축된 수준이다.

&lt;표 4&gt; 사민당-적녹연합 지지자 변화

직전총선 \ 총선	사민당	적녹 연대정당	기타 정당
사민당	1 사민당핵심	2 적녹 핵심	4 적녹 이탈
적녹 연대정당	2 적녹 핵심	2 적녹 핵심	4 적녹 이탈
기타 정당	3 적녹 합류	3 적녹 합류	5 비적녹연합

	2002	2006	2010	2014	평균
사민당핵심	27.5	23.0	18.3	18.6	21.9
적녹 핵심	15.3	12.5	14.2	14.1	14.0
적녹 합류	10.2	7.9	11.5	11.7	10.3
적녹 이탈	6.1	9.8	6.2	7.4	7.4
비적녹연합	40.9	46.8	49.8	48.3	46.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

### 3.2. 사민당-적녹연합의 계급적 기초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노동계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간계급이고, 소유계급은 비소유계급들에 비해 지지율이 훨씬 더 낮다(<표 5> 참조). 사민당 지지율에서 최고치인 생산직 노동자의 43.15%와 최저치인 농민의 9.43%의 차이는 33.72%에 달하고 있어, 계급 간 사민당 지지율 차이는 여전히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계급위치와 직업집단별 지지 정당, 2014년 총선

직업	1 사민당	2 좌익당	3 녹색당	4 기타	합계
<자본계급>					
고용주	15.25%	2.28%	3.73%	78.75%	100.0%
사무직 경영인	16.80%	3.15%	4.23%	75.80%	100.0%
<뺨띠부르주아>					
농민	9.43%	2.85%	3.75%	84.00%	100.0%
도시뺨띠	16.98%	6.70%	9.18%	67.13%	100.0%
<중간계급>					
사무직 감독인	23.80%	6.08%	6.23%	63.95%	100.0%
사무직 노동자	25.18%	8.43%	9.28%	57.08%	100.0%
생산직 감독인	38.95%	5.95%	5.98%	49.13%	100.0%
<노동계급>					
생산직 노동자	43.15%	10.63%	7.03%	39.23%	100.0%
<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	27.43%	10.70%	12.73%	49.15%	100.0%

소유계급 구성 집단들 가운데 도시쁘띠부르주아가 시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율이 가장 높는데, 시민당보다는 적녹연합 연대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고, 그 가운데서도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 이는 도시 뿌띠부르주아가 거대 자본의 시장독점의 피해자이면서 자본가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양면성을 지니는 한편, 도시 문화의 자유 분방성과 다양성 존중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농민 집단이 소유계급 구성 집단들 가운데 시민당과 적녹연합 지지율이 가장 낮는데 이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중앙당에 대한 높은 충성도에 기인한 것이다.

노동계급은 시민당에 대해서는 43.15%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적녹연합 연대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은 18%에 불과하다. 중간계급은 노동계급에 비해 구성 집단들의 이질성도 크고 구성 집단들 간 정치적 성향의 차이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직 감독인은 높은 시민당 지지율과 낮은 연대정당 지지율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사무직 노동자·감독인은 시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더 낮지만 적녹연합 연대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사무직 노동자 집단은 사무직 감독인에 비해 시민당과 연대정당들에 대해 경미한 수준이지만 좀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간계급의 내적 이질성은 생산직·사무직의 칼러라인, 즉 기술재 보유 수준과 감독인-노동자의 조직재 보유 수준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술재 효과와 조직재 효과는 부가적(additive)으로 작동하고 있다.

소유계급들에 비해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등 비소유계급들이 시민당과 적녹연합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임금노동자(wage-earner)라는 공통된 물질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한편, 시민당이 1950년대 후반부터 추진한 노동-중간계급 계급연합 전략의 성과를 반영하기도 한다.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핵심을 구성하는 생산직 노동자 집단과 사무직 노동자<sup>10)</sup> 집단의 지지 정당 분포 변화를 보면, 시민당 지지율은 생산직 노동

10) 사무직 노동자 집단 가운데는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기직 같은 직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노동계급으로 분류되어야

자가 사무직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으며 그 차이는 18%에 달한다(<표 6> 참조). 반면, 적녹동맹 연대정당 지지율은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양자 모두 똑같이 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 집단의 사민당 지지율은 2002년에 비해 8.5%나 하락했고 좌익당 지지율도 2% 정도 하락했지만, 녹색당 지지율은 도리어 3% 상승함으로써 적녹연합 지지율 하락 폭을 줄일 수 있었다.

<표 6> 노동계급·중간계급 핵심 부분의 지지 정당 분포, 2014년 총선

	1 사민당	2 좌익당	3 녹색당	4 기타	합계
<노동계급: 생산직노동자>					
2002	49.1%	14.1%	4.8%	32.0%	100.0%
2006	43.8%	10.1%	6.7%	39.5%	100.0%
2010	40.3%	8.8%	9.0%	41.9%	100.0%
2014	39.4%	9.5%	7.6%	43.5%	100.0%
평균	43.15%	10.63%	7.03%	39.23%	100.0%
<중간계급: 사무직노동자>					
2002	32.3%	10.4%	7.4%	49.8%	100.0%
2006	24.4%	7.0%	7.4%	61.2%	100.0%
2010	20.2%	7.8%	11.9%	60.0%	100.0%
2014	23.8%	8.5%	10.4%	57.3%	100.0%
평균	25.18%	8.43%	9.28%	57.08%	100.0%

한편 생산직 노동자들의 사민당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2년 49.1%에서 10%나 하락했는데, 하락 폭은 매우 작아졌지만 하락 추세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직 노동자들의 적녹연합 연대정당들에 대한 지지율 하락폭은 1.8%에 불과했는데, 이는 좌익당 지지율 하락을 녹색당 지지율 상승으로 일정부분 상쇄한 결과이다. 이처럼 생산직 노동자들의 적녹연합 지지율은 사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함께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

하지만 본 자료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등 다른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서 보다 더 정교한 계급별주화는 시도할 수 없다.

며, 사민당과 적녹연합 지지기반의 핵심을 구성하는 노동계급의 현신성 약화를 반영한다.

위와 같이 계급투표 현상은 계급위치별 사민당 지지율 편차로 나타나고 있지만, 계급투표 현상이 악화되고 있음은 노동계급의 사민당 지지율 하락에서 확인되고 있다.

### 3.3. 노동조합 유형별 정당 지지율 편차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70%를 넘는 높은 조직율로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체성과 함께 이념적 입장 및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 총연맹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LO, 사무직 노동자들의 TCO(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사무직노총), 전문직 노동자들의 SACO(Sveriges akademikers centralorganisation 스웨덴전문직노총)로 나뉘어 있다.<sup>11)</sup> LO는 52%의 높은 사민당 지지율을 보이며 사민당의 계급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고, TCO는 31%, SACO는 20%로 LO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소속 노조 유형별 지지 정당, 2014년 총선

2002-2014	1 사민당	2 좌익당	3 녹색당	4 기타	합계
LO	52.15%	10.55%	5.15%	32.10%	100.0%
TCO	30.73%	9.28%	7.88%	52.13%	100.0%
SACO	20.08%	8.63%	12.48%	58.80%	100.0%

TCO와 SACO의 사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LO에 비해 더 낮지만, 적녹연합 연대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은 LO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본 자료의 사무직 노동자 집단의 경우 LO 소속은 9.8%에 불과하고 52.3%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TCO와 SACO 노동조합들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생산직 감독인 집단의 구성원들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승진을 통해 감독인 지위를 취득한 탓으로 대부분 생산직 노동자 시절 가입한 LO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TCO와 SACO가 좌익당에 대한 지지율은 LO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지만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은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SACO는 TCO보다도 녹색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세 노총 노조원들의 녹색당 지지율 순위는 노조원들의 학력수준 차이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세 노총 노조원들의 지지 정당 분포를 보면, LO는 적녹연합 지지자들이 비적녹연합의 세 배에 달하고, TCO는 적녹연합과 비적녹연합 지지자들로 반반으로 나뉜 가운데 적녹연합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으며, SACO의 경우 비적녹연합 지지자들이 60% 가깝게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세 노총 노조원들의 정당연합 지지율 변화를 보면 2002년 총선에 비해 2006년 총선에서 적녹연합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2010년 총선과 2014년 총선에서 적녹연합 지지율은 소폭 회복하는데 그침으로써 노총별 지지 정당연합 분포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표 8> 소속 노조 유형별 지지 정당 변화

	1 사민당	2 좌익당	3 녹색당	4 기타	합계
<LO>					
2002	57.3%	13.1%	3.6%	26.0%	100.0%
2006	52.4%	10.0%	4.4%	33.1%	100.0%
2010	49.0%	9.0%	7.0%	34.9%	100.0%
2014	49.9%	10.1%	5.6%	34.4%	100.0%
평균	52.15%	10.55%	5.15%	32.10%	100.0%
<TCO>					
2002	38.1%	12.1%	5.8%	44.0%	100.0%
2006	30.3%	8.1%	6.3%	55.3%	100.0%
2010	25.9%	7.7%	10.8%	55.6%	100.0%
2014	28.6%	9.2%	8.6%	53.6%	100.0%
평균	30.73%	9.28%	7.88%	52.13%	100.0%
<SACO>					
2002	24.9%	11.4%	10.1%	53.6%	100.0%
2006	19.1%	7.1%	11.0%	62.8%	100.0%

2010	17.1%	8.1%	15.7%	59.0%	100.0%
2014	19.2%	7.9%	13.1%	59.8%	100.0%
평균	20.08%	8.63%	12.48%	58.80%	100.0%

LO의 사민당 지지율은 여전히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02년 57%에서 크게 하락하여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반면 LO 노조원들 가운데 좌익당 지지율은 견고한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좌익당과 녹색당의 연대정당 지지율은 2002년부터 2014년 총선까지 줄곧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사민당이 실권한 2006년 총선부터 201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LO는 절반의 사민당 지지를 포함하여 노조원의 2/3 정도가 여전히 적녹연합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LO가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계급적 기초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2002년 총선 수준의 적녹연합 지지율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LO 노조원들의 사민당 이탈 현상은 사민당의 제3의길 선택 이래 진행된 사민당과 LO의 조직적 연계의 약화와 노동자들의 불만 심화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보수당이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적극적 변신을 시도하며 노동자 지지 견인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보수당의 노동자 견인 현상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우파연합 8년 집권기간 동안 실업률은 하락하지 않고 실업수당 감축 등 복지제도가 상당정도 훼손된 데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민당이 우파연합에 의해 훼손된 ‘진정한 노동우선주의(Arbetslinjen)’를 복원하고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전통적 노동계급 정당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sup>12)</sup>

한편, TCO 노조원들은 2002년 총선에서 적녹연합에 56%라는 절반을 넘는 비율의 지지를 보냈지만 2006년 총선에는 45%로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하락했다. 이후 TCO 노조원들의 적녹연합 지지율은 거의 상승하

12) 보수당과 사민당의 노동자 지지 견인 노력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Ernerot 면담(2013), Nilsson 면담(2013), Söder 면담(2013), Aftonbladet(2014.7.25), Dagens Arena(2015.5.21), SAP(2014), Wadensjö(2009), Jolivet & Mantz(2010), 조돈문(2015)을 참조했음.

지 않고 있다. 이는 TCO가 전통적으로 LO와 연대하며 사민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006년 우파연합 집권 이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노조원들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에 집권 우파연합이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처럼 LO는 사민당의 확고한 계급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LO의 사민당 지지율 하락 추세는 사민당의 노동계급 기초 약화와 함께 계급투표 현상의 후퇴를 보여준다. 하지만, LO의 지지율 변동폭이 8.3%로 TCO의 12.2%보다 작은 것은 중간계급의 TCO 조합원이 쟁점투표 성향이 더 큰 반면 노동계급의 LO 조합원은 정체성 투표, 즉 계급투표 성향이 여전히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선거 쟁점과 쟁점점유 정당

### 4.1. 총선 쟁점 우선순위의 변화

총선 주요 쟁점들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들 가운데 네 차례 총선 여론조사 설문지에 모두 포함된 항목들의 연도별 중요성 정도, 우선순위, 2002-2014년의 변화 정도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선거 쟁점의 중요성 정도<sup>13)</sup>

	2002	2006	2010	2014	2002-2014
<경제>					
스웨덴경제	1.56 <sup>③</sup>	1.65 <sup>③</sup>	1.64 <sup>③</sup>	1.67 <sup>③</sup>	-0.11

13) 설문조사는 각각의 선거 쟁점들에 대해 응답자가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응답지의 범위는 1(매우중요)-5, 원문자는 해당년도 선거쟁점 우선순위 제1-9순위, 2002-2014 변화의 정(+ )의 값은 중요도 증가, 부(-) 값은 중요도 감소를 의미함. 1998년 설문조사는 복수의 쟁점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2002-2014 총선의 설문조사 결과와 직접적 비교는 할 수 없음.

고용	1.63④	1.58①	1.62①	1.67③	-0.04
조세	1.98⑨	2.03⑧	2.05⑦	2.05⑧	-0.07
기업활동여건	2.12	2.06⑨	2.22	2.28	-0.16
평균	1.82	1.83	1.88	1.92	-0.10
<사회>					
학교·교육	1.44①	1.62②	1.63②	1.56①	-0.12
보건의료	1.47②	1.67④	1.71④	1.64②	-0.17
노인복지	1.70⑤	1.86⑤	1.97⑤	1.81⑤	-0.11
남여평등	1.92⑦	2.09	2.10⑧	2.02⑦	-0.10
평균	1.63	1.81	1.85	1.76	-0.13
<기타>					
환경	1.96⑧	2.06	2.00⑥	1.97⑥	-0.01
난민/이민	2.11	2.30	2.32	2.13⑨	-0.02
에너지와 핵발전	2.17	2.02⑦	2.15	2.18	-0.01
법과 질서	1.78⑥	1.91⑥	2.12⑨	2.19	-0.41
정당지도자	2.38	2.42	2.36	2.27	0.11
EU	2.23	2.47	2.77	2.52	-0.29
국방(외교안보)	2.12	2.29	2.45	2.71	-0.59
평균	2.11	2.21	2.31	2.28	-0.17
<쟁점 중요도 비교>					
경제 - 사회*	0.19	0.02	0.03	0.16	

\*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중요도 지수 차이

설문조사에 일관되게 포함된 15개 항목들 가운데 기타 문제의 7개 항목들은 네 차례 총선에서 핵심쟁점 5순위에 포함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매번 총선에서 2개 항목 정도가 6-9 순위에 편입되었다. 반면,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8개 항목들 가운데 매번 총선에서 7개 항목들이 9순위 이내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의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임이 자명하다.

네 차례 총선에서 중요도 1순위에서 5순위까지의 쟁점들을 봐도 모두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문제의 두 항목 스웨덴

경제와 고용,<sup>14)</sup> 사회문제의 학교·교육, 보건의료, 노인복지로 동일하다. 이처럼 몇 가지 쟁점들이 매년 총선에서 각축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변화했다. 2002년과 2014년 총선의 5대 쟁점의 우선순위는 학교·교육, 보건의료, 스웨덴 경제, 고용, 노인복지의 순서이며 2014년 총선에서 스웨덴 경제와 고용이 동률 제3순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선순위가 동일하다. 한편, 2006년과 2010년 총선의 5대 쟁점의 우선순위는 고용, 학교·교육, 스웨덴 경제, 보건의료, 노인복지의 순서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5대 쟁점들 가운데 경제문제가 두 항목을 구성하는 데 비해 사회문제가 세 항목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가 경제문제보다 총선의 지지 정당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는 경제문제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선거쟁점의 우선순위 변화가 사민당의 적녹연합 대신 보수당이 주도하는 우파연합을 집권하도록 했다.

경제문제 대비 사회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은 설문조사에 포함된 사회문제 네 항목과 경제문제 네 항목의 우선순위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경제문제 4항목의 중요도는 2002년 1.82에서 점차 중요도가 하락하며 2014년에는 1.92로 0.10만큼 낮은 중요도를 보인 반면, 사회문제 4항목의 중요도는 2002년 1.63에서 크게 하락하여 2006년과 2010년에는 0.20만큼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가 2014년 총선에서는 0.10 정도 중요도를 회복했다. 네 차례 총선에서 사회문제 쟁점들의 평균 중요도는 경제문제 중요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문제와의 중요도 차이는 2002년과 2014년 총선에서 각각 0.19와 0.16의 중요도 차이를 보인 반면,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는 중요도 차이가 각각 0.02와 0.03로 최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는 경제문제보다 경미한 수준이나마 더 높은 중요도를 지켰다. 이처럼 사회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컸던

14) 고용은 경제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고용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발생할 경우 경제문제의 측면이 크지만, 삶의 질 향상 혹은 일자리 창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확대의 결과로 발생할 경우 사회문제의 측면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 비해 일자리 배분은 사회문제의 성격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섯 가지 핵심 선거 쟁점들 가운데 온전히 경제문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스웨덴 경제 항목 하나뿐이며, 따라서 사회문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에서는 사민당과 적녹연합이 승리한 반면, 경제문제의 중요성이 증대하여 사회문제와의 중요도 차이가 감소한 총선에서는 보수당과 우파연합이 승리했다.

이러한 선거 쟁점 변화 현상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선거 쟁점들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는 선거 쟁점에 따라 지지정당이 좌우되는 쟁점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투표 정당이 결정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쟁점투표를 경제투표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둘째, 스웨덴 총선은 사회문제가 경제문제보다 더 중요하여 사회투표가 경제투표보다 더 보편적인 가운데,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져서 사회문제의 중요도에 육박할 경우 경제투표 경향이 사회투표 경향과 각축을 벌임으로써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선거 승리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웨덴인들은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를 0.16만큼 더 중요시하는데, 사민당과 적녹연합 지지 세력들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사회문제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더 크다(<표 10> 참조). 반면, 비적녹연합 세력은 경제문제를 사회문제보다 0.15만큼 더 중시하고 있어 적녹연합 관련 세력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적녹연합 세력이 사회문제를 더 중시하는 반면 비적녹연합 세력은 상대적으로 경제문제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사민당-적녹연합 지지 유형별 선거 쟁점의 중요성 정도, 2014년 총선

	<경제 부문>					<사회 부문>				
	스웨덴 경제	고용	조세	기업활 동여건	평균	학교· 교육	보건 의료	노인 복지	남여 평등	평균
사민당핵심	1.62	1.46	1.99	2.44	1.88	1.43	1.38	1.45	1.87	1.53
적녹 핵심	2.02	1.75	2.32	2.83	2.23	1.48	1.55	1.74	1.67	1.61
적녹 합류	1.89	1.81	2.26	2.56	2.13	1.53	1.62	1.86	1.95	1.74
적녹 이탈	1.97	1.84	2.17	2.71	2.17	1.60	1.63	1.82	1.59	1.66
비적녹연합	1.49	1.66	1.92	1.94	1.75	1.62	1.76	1.95	2.26	1.90
전체	1.67	1.67	2.05	2.28	1.92	1.56	1.64	1.81	2.02	1.76

## 4.2. 정당의 정책역량 평가와 지지 정당

사민당은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에서 더 뛰어난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표 11> 참조). 사회문제에서 사민당과 보수당의 우수정당 평가 비율 차이는 1998년 22.3%에서 2014년 13.2%로 크게 감축했지만 사민당의 보수당에 대한 절대적 우위는 지켜지고 있다. 사회문제 영역들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과 남녀평등 영역에서 사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당보다 뛰어난 정책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왔는데, 학교·교육 영역에서는 1998년 우위 정도가 3.3%로 경미했으나 2014년에는 15.1%로 우위의 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정책역량을 인정받게 되었다.

<표 11> 해당 분야 최고의 정책역량을 지닌 정당, 1998 & 2014(%)<sup>15)</sup>

	1998			2014		
	사민당	보수당	사민-보수*	사민당	보수당	사민-보수
<경제>						
스웨덴경제	25.8	14.4	11.4(19.6)	26.6	38.9	-12.3
고용	13.1	12.3	0.8(1.4)	31.2	30.2	1.0
조세	16.4	23.5	-7.1(-12.2)	27.3	33.1	-5.8
평균	18.4	16.7	1.7(2.9)	28.4	34.1	-5.7
<사회>						
사회복지	27.5	2.9	24.6(42.2)	31.3	15.1	16.2

15) 해당 쟁점분야에 대한 최고의 정책역량을 지닌 정당을 묻는 설문은 2014년 설문과 1998년 설문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공통된 8개 항목들의 응답 결과를 정리했다. 2014년 설문의 경우 한 개의 정당만을 선택하도록 한 반면, 1998년 복수의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사민당과 보수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응답자의 백분율을 산정했다. 사민당과 보수당의 응답자 비율 차이의 정(+)의 값은 사민당의 우위를, 부(-)의 값은 보수당의 우위를 의미하며, ()속 값은 1998년 사민-보수 차이 값에 가중치 1.715556을 곱한 값이다. 1998년 설문조사의 경우 사민당과 보수당을 포함한 복수 응답을 배제했기 때문에 사민당과 보수당 선택 백분율의 합이 2014년 사민당과 보수당 선택 백분율의 값과 일치하도록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학교·교육	14.7	12.8	1.9(3.3)	26.6	11.5	15.1
남여평등	13.8	1.3	12.5(21.4)	17.9	9.5	8.4
평균	18.7	5.7	13.0(22.3)	25.3	12.0	13.2
<기타>						
환경	4.0	1.9	2.1(3.6)	9.6	6.4	3.2
난민/이민	10.2	7.9	2.3(3.9)	20.2	12.0	8.2
평균	7.1	4.9	2.2(3.8)	14.9	9.2	5.7

사회문제의 사민당 우위는 사민당이 스웨덴 복지국가를 건설한 주체로서 정책역량을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인데, 사민당의 보수당 대비 상대적 우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보수당의 정책역량 평가가 사회복지 영역과 남녀평등 영역에서 보듯이 크게 개선된 결과인데, 이는 보수당과 우파연합이 스웨덴 복지국가 정책들을 상당부분 계승하는 결과인 동시에 우파연합에 의해 도입되는 시장논리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폭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사민당과 보수당의 정책역량 평가 차이의 축소는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총선 경쟁력의 미래 전망에 대해 낙관만 하기는 어렵게 한다.

경제문제는 사민당이 1998년에 2.9% 차이로 경미하나마 보수당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보였지만, 2014년에는 역전되어 보수당에 5.7%나 뒤지게 되었다. 경제문제 영역들 가운데 고용 영역에서는 사민당이 1998년 1.4%, 2014년 1.0% 차이로 경미한 수준의 우위를 보여 사민당과 보수당이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세 영역에서는 보수당이 1998년과 2014년 모두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당과 우파연합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문제의 스웨덴 경제 영역에서는 사민당이 1998년에 19.6%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는 보수당과 우파 정부가 집권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경제성장 및 위기관리 실패로 실권한 반면 사민당 집권 시기 스웨덴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한 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민당의 스웨덴 경제 운영 능력 평가의 압도적 우위는 소멸되고 2014년 총선에서는 완전 역전되어 보수당이 사민당에 비해

12.3%의 높은 평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스웨덴 경제가 상대적으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추세를 복원한 데 대해 집권 우파연합의 정책역량과 정책성과를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통합 가속화 추세 속에서 시민들이 시장경제 논리를 내면화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신고전파 관점에 보다 더 관대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요 쟁점 영역들의 정당 역량 평가는 곧바로 정당 지지도로 연결된다. 사민당 핵심은 사회문제는 물론 경제문제에서도 사민당에 압도적 정책역량 우위를 부여하여 사민당과 보수당의 격차가 70%를 넘고 있다(<표 12> 참조). 한편, 적녹연합 충성도가 높은 비사민당 적녹연합 핵심은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모두 사민당이 보수당에 비해 훨씬 더 정책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사민당 핵심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약하다. 적녹연합 신규 합류 세력은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모두 사민당이 뛰어난 정책역량을 지닌다고 평가하며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다. 적녹연합 합류 세력은 경제문제 정책역량 평가에서 전통적 적녹연합 핵심세력과 사민당의 정책역량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사회부문 역량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적녹연합 이탈 세력은 사회부문의 사민당 우위에 대해서는 적녹연합 핵심세력에 비해 4.5%의 작은 차이로 조금 약한 평가를 하는 반면, 경제부문의 사민당 우위에 대해선 17.8%의 큰 차이로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는 이들이 적녹연합을 이탈한 이유가 사회문제에 대한 사민당의 정책역량보다 경제문제에 대한 사민당의 정책역량에 대한 의구심이었음을 의미한다.

&lt;표 12&gt; 지지 유형별 선거쟁점 영역별 사민당-보수당 역량 차이(%), 2014년 총선

	1 사민당 핵심	2 적녹 핵심	3 적녹 합류	4 적녹 이탈	5 적녹 연합	전체
<경제>						
스웨덴경제	70.9	25.3	16.2	5.4	-64.2	-12.3
고용	82.9	34.9	36.9	17.3	-51.7	1.0
조세	74.3	24.7	29.3	8.9	-56.2	-5.8
평균	76.0	28.3	27.5	10.5	-57.4	-5.7
<사회>						
사회복지	82.3	25.9	47.0	19.7	-20.1	16.2
학교·교육	77.0	22.8	38.8	16.7	-16.8	15.1
남여평등	57.3	8.9	25.1	7.8	-14.4	8.4
평균	72.2	19.2	37.0	14.7	-17.1	13.2

\* 2014년 사민당-보수당의 우수 정당 선택 백분율 차이(%)

2010년과 2014년 총선 모두 적녹연합 지지를 거부한 비적녹연합 세력은 경제문제에서는 보수당에 57%의 압도적 우위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문제에서도 보수당에 17%의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 적녹연합 이탈세력도 사회문제는 물론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사민당의 정책역량 우위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녹연합 이탈세력과 비적녹연합 세력 사이의 사민당-보수당 정책역량 평가에도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적녹연합 이탈세력을 포함한 적녹연합 우호 세력과 비적녹연합 사이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사회문제에 대한 사민당-보수당의 정책역량 평가보다 경제문제의 정책역량 평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적녹연합과 우파연합 사이의 선택에 있어 사회문제 역량평가보다 경제문제 역량평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역량 평가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강화해온 사민당의 역할과 정책역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경제문제의 정책역량 평가는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정당의 정책역량 평가와 지지 정당 선택 사이에는 상호적 인과관계

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당과 보수당 등 경쟁정당들의 정책역량을 비교평가하여 우수한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한편, 지지 정당이 결정되면 정책감을 느끼는 정당의 정책대안과 정책역량에 정당성과 수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적 인과관계는 스웨덴 정당들이 정당비례투표제에 기초한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적녹연합과 우파연합의 양강 대립구도로 재편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보강되었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성은 적녹연합 혹은 우파연합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세력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양대 정당연합 사이의 부동층은 정당의 정책역량 평가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책역량 평가에 따라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핵심 지지층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정책역량을 평가하는 반면, 부동층은 상대적으로 정책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지지정당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 4.3. 시민당의 정책역량과 계급적 기초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LO와 TCO를 중심으로 선거 쟁점 중요도를 비교하면 경제문제를 중시하는 정도는 비슷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해서 LO가 TCO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3> 참조).

<표 13> 소속 노조별 선거 쟁점 중요시 정도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스웨덴 경제	고용	조세	기업활동여건	평균	학교·교육	보건 의료	노인 복지	남여 평등	평균
비노조	1.68	1.73	2.00	2.20	1.90	1.59	1.69	1.89	2.07	1.81
LO	1.64	1.55	2.01	2.37	1.89	1.47	1.44	1.53	1.90	1.59
TCO	1.68	1.63	2.11	2.34	1.94	1.56	1.63	1.76	2.03	1.75
SACO	1.69	1.67	2.17	2.38	1.98	1.57	1.73	1.98	1.98	1.82
전체	1.67	1.67	2.05	2.28	1.92	1.56	1.64	1.81	2.02	1.76

경제문제를 중시하는 정도는 LO, TCO, SACO의 순서인데, TCO와 LO는 전체 평균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양자 사이의 차이는 0.05에 불과하다. 한편, 사회문제를 중시하는 정도도 LO, TCO, SACO 순서로 경제문제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TCO가 전체 스웨덴인 평균 수준을 보이는 반면, LO는 사회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여 TCO보다 중시하는 정도가 0.16만큼 더 크다. 세 노총 노조원들 모두 사회문제를 경제문제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데, 우선시하는 정도의 차이는 LO의 경우 0.30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TCO와 SACO로 각각 0.19와 0.16을 보이고 있다.

세 노총들 간의 시민당-보수당 정책역량 평가는 사회문제에 비해 경제문제에서 더 큰 편차를 보여준다(<표 14> 참조). LO 노조원은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에서도 시민당이 보수당에 비해 정책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강하게 갖는 반면 TCO와 SACO는 사회문제의 시민당 우위는 인정하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당의 우위로 평가하고 있다. LO는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모두 30% 이상에 달하는 큰 차이로 시민당의 우위를 평가하고 있어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평가 사이의 차이는 경미한 반면 TCO와 SACO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당에 대해 세 노총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SACO 노조원은 경제부문에서 보수당의 우위를 전체 평균보다 더 강조한 반면 사회부문에서는 시민당의 우위를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인색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4> 소속 노조별 쟁점 부문 우수 정당 평가 차이(%)

union	비노조	LO	TCO	SACO	전체
<경제 문제>					
스웨덴경제	-26.6	26.9	-10.4	-21.8	-12.3
고용	-14.0	38.8	4.9	-6.3	1.0
조세	-18.2	28.2	-4.0	-14.3	-5.8
평균	-19.6	31.3	-3.2	-14.1	-5.7
<사회 문제>					
사회복지	5.0	42.0	20.8	12.5	16.2

학교·교육	5.9	40.1	16.9	9.4	15.1
남여평등	0.8	28.5	9.1	4.6	8.4
평균	3.9	36.9	15.6	8.8	13.2

\* 2014년 사민당-보수당의 우수 정당 선택 백분율 차이(%).

TCO노조원은 전체 유권자들의 평균 수준을 보여주며 사회문제는 사민당이, 경제문제는 보수당이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TCO는 경제문제에서도 조세 영역은 보수당의 우위를 인정하지만 고용 영역에 대해서는 사민당의 우위로 평가한다. 반면, 스웨덴 경제 영역에서 보수당이 10.4% 차이의 정책역량 우위를 확보한 것은 TCO가 보수당의 우파연합 정부가 경제위기를 나름대로 잘 극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LO 노조원들이 집중분포 되어있는 제조업에 비해 TCO 노조원들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경제위기의 타격을 적게 입은 현실이 일정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LO 노조원과 TCO 노조원 모두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를 더 중시하되, LO 노조원이 사회문제를 중시하는 정도가 더 크며, 정책역량 평가에서도 LO 노조원은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모두 사민당이 보수당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TCO 노조원은 사회문제는 사민당이, 경제문제는 보수당이 더 우월하다고 평가한다. 결국, LO 노조원에 비해 TCO 노조원은 경제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며 경제문제 정책역량에서 보수당의 우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투표 경향성이 더 강하며, 그 수혜자는 사민당이 아니라 보수당이라 할 수 있다. 사민당이 Stefan Löfven을 대표로 선택하여 2014년 총선에 임한 것은 경제문제 정책역량의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문제의 쟁점점유 정당의 지위를 탈환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Löfven은 2008-2009년 경제위기하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 대타협을 성사시켜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의 경제위기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민당은 그러한 경험을 강조하며 경제를 아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민당의 후보 전략이 보수당의 경제문제 정책역량 평가 우위 강화를 제어

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 5. 토론 및 맺음말

### 5.1.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계급적 지지기반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노동계급이 가장 높은 반면 소유계급들이 전반적으로 낮는데 그 가운데서도 농민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급 간 지지 정당성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계급투표 현상은 아직도 유의미하며, LO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이 여전히 사민당의 확고한 계급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중간계급 지지율은 노동계급보다는 낮지만, 농민집단은 물론 자본계급 등 소유계급들보다 더 높다. 이는 중간계급이 임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계급적 위치를 반영하는 한편 사민당의 노동·중간계급의 계급연합 전략의 성과이기도 하다.

사민당의 핵심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사민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며 계급투표 현상의 약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민당의 제3의 길 채택 이후 사민당과 LO의 관계가 악화되고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LO 조합원들의 사민당 이탈 과정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었는데, 제조업 생산직의 노동시장 비중이 위축되고 LO의 조직률마저 하락하고 있어 LO 중심 노동계급의 지지기반에 의존하고 있는 사민당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민당이 급속노조 위원장 Löfven을 대표로 선임하고 총선에 임하며 ‘진정한 노동우선주의’를 표방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사민당의 노동계급 지지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노동·중간 계급의 계급연합 실천은 보수당과 우파연합의 8년 집권 기간 동안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TCO 중심으로 조직된 중간계급의 사민당과 적

16) Löfven의 경력과 사민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Asplund 면담(2012, 2013), Nilsson 면담(2013), Tsarouhas(2013)을 참조했음.

녹연합에 대한 지지율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간계급 정체성 형성을 주도하는 TCO가 LO와 연대하며 사민당 친화적인 행보를 취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의 행보를 강화하면서 TCO 노조원들과 중간계급의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다음 회복되지 않고 있다.

## 5.2. 경제투표와 사회투표

계급투표 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쟁점투표는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양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를 더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균형-불균형 정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의 부침에 따라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도가 좌우되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것이다.

사민당은 복지국가와 스웨덴 모델을 건설한 주체로서 사회문제에 우수한 정책역량을 지닌 쟁점 점유 정당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쟁점 점유 정당이 사민당에서 보수당으로 교체되었음은 2006년 총선에서부터 확인되기 시작했다.

보수당과 우파연합이 복지국가와 스웨덴 모델의 핵심적 정책요소들을 훼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사회문제에 관한 사민당과 보수당의 정책적 수렴 현상이 가시화되었다. 그 결과, 총선 시기 정당 선택에서 사회적 문제가 경제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문제의 정책적 차별성이 약화됨으로 인해 경제문제의 정책적 차별성과 역량 평가가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스웨덴 유권자들은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를 더 중시하면서도 경제문제의 정당 역량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지 정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적녹연합 이탈세력의 사례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 세력은 사회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비적녹연합 세력은 경제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LO 조합원과 TCO 조합원 모두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가운데, 경제문제를 중시하는 정도는 비슷하나, 사회문제를 중시하는 정도에서는 LO가 TCO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도는 총선들 사이에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었다. 2002년과 2014년 총선은 사회문제가 중시된 반면, 2006년과 2010년 총선은 경제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와 거의 대등한 중요도를 기록하면서 경제투표의 경향성을 강화했다. 결국, 사회문제의 중요성이 큰 총선에서는 시민당과 적녹연합이 승리한 반면, 경제문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총선에서는 보수당과 우파연합이 승리했는데, 이는 보수당이 경제문제의 정책역량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계급투표 현상이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쟁점투표 현상은 강화되지만, 경제투표 현상이 선형적으로 강화 혹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투표와 경제투표 사이의 균형추는 외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컨대 경제위기를 경험한 뒤의 총선일수록 2010년 총선처럼 경제투표 행위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 5.3. 정책역량과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

보수당의 우파연합이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연이어 시민당의 적녹연합에 승리를 거둔 것은 사회문제 대비 경제문제의 중요도가 상승한 가운데 경제문제의 정책역량 우위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책역량 평가는 1998년 총선과 2014년 총선 출구조사에서 실시되었는데, 사회문제에서는 1998년과 2014년 모두 시민당이 우위를 차지했다. 물론 시민당의 우위 정도는 다소 약화되었지만 시민당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파연합의 장기집권 하에서 실망스런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평가제) 점수가 공개되면서 시민당의 학교·교육 영역의 정책역량 우위는 크게 강화된 반면, 보수당의 중도화 전략으로 시민당의 사회복지와 남녀평등의 우위는 상당정도 약화되었다.

한편, 경제문제에서는 1998년과 2014년 사이 쟁점점유 정당이 교체되었는데 시민당의 경미한 정책역량 우위가 보수당의 소폭 우위로 바뀌었다. 이는 스웨덴 경제 운영에서 1998년 총선에서는 시민당이 압도적 정책역량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2014년 총선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보수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은 상존하며, 쟁점들 가운데 경제문제의 쟁점 점유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의 경험적 타당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

LO 조합원은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모두 사민당의 정책역량 우위를 확신한 반면, TCO 조합원은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사민당의 우위를,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당의 우위를 인정하며 전체 유권자들의 평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파연합 정부가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반영하는 동시에 무한경쟁의 시장지배 논리를 내면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TCO 조합원을 포함한 평균적 스웨덴인의 경제문제 정책역량 평가는 우파연합 정부가 197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경제운영 실패와 위기관리 무능으로 실권하며 사민당의 경제문제 정책역량의 우위를 확인해 주었다는 기억을 상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파연합 정부의 2008-2009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의 성과는 우파연합 정부의 위기 대응력의 성과라기보다 스칸디나비아 시장경제모델이 지닌 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사민당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했다는 사실도 간과한 것이다. 이처럼 보수당의 경제문제 역량의 우위 평가에 대한 과학적·경험적 근거는 의문시될 수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시기의 집권 세력은 선거 승리로 보상받는 경험칙에 스웨덴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TCO의 경제문제 정책역량 평가는 LO 조합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이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은 반면, TCO 조합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은 수출보다 내수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의 타격을 적게 받았다는 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

#### 5.4. 2014년 총선 여건과 사민당·적녹연합의 미래

2014년 총선에서 사민당은 우파연합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실업문제 해

결책, 교육개혁과 복지서비스를 핵심적으로 쟁점화했다. 한편, 집권 우파연합도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성과와 소득세 인하 혜택을 2010년 총선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했다지만, 실업문제 해결책과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실업문제의 심각성과 PISA 결과로 공론화된 학교교육 정책의 실패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4년 총선에서 양대 블록이 정면 격돌한 공통 주제는 실업문제와 교육 문제였다. 교육문제는 시민당이 보수당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평가 받는 쟁점 영역으로서, 보수당의 우위 평가 비율이 11.5%인 반면, 시민당의 우위 평가 비율은 26.6%로 그 두 배가 넘는다.

한편, 고용문제는 시민당이 보수당에 비해 1% 수준의 경미한 우위를 보일 정도로 양대 정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 영역이다. 하지만, 정책역량 평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보수 우위를 평가하는 입장은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여 실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데 보수당이 경제 운영 역량에서 우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반면, 시민당의 우위를 평가하는 입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노동시장 개입을 통한 고용문제 개선 능력을 시민당이 지니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 정책 실패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고실업을 문제는 그 자체로 우파연합 정부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민당에게 유리한 경쟁 여건을 조성 해준 것이다.

이처럼 2014년 총선이 시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시민당이 지지율을 0.4%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민당의 안정적 정권 재창출과 시민당-적녹연합의 미래 전망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물론 실업율과 경제운영 등 경제문제에서 시민당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다면 경제문제의 쟁점 점유자가 보수당에서 시민당으로 교체되며 시민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당이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유명세를 탄 Löfven을 대표로 영입하여 2014년 총선에 임한 것은 시민당의 노동계급 계급적 기초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문제 쟁점점유

정당의 지위를 탈환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러한 사민당의 전략은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신광영. 2012.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보수 정당들의 정치전략 연구: 2000년대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13.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조돈문. 1996.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계급적 기초와 계급연합 전략의 전망”. 『산업노동연구』 1. 한국산업노동학회.
- 조돈문. 신광영. 1997. “스웨덴 모델의 미래: 사회민주당의 계급연합 전략과 지지기반의 변화”. 『산업노동연구』 2. 한국산업노동학회.
- 조돈문. 2015. “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황금삼각형과 이중보호체계”. 『산업노동연구』 2. 한국산업노동학회.
- 최연혁. 2015. “2014년 스웨덴 총선의 쟁점과 평가” 《2015년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5.30,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 Aylott, Nicholas & Niklas Bolin. 2015. “Elections in Context: Polarising Pluralism: The Swedish Parliamentary Election of September 2014”. *West European Politics*. 38:3. pp. 730-740.
- Berg. Linda & Henrik Oscarsson. 2014. “The Swedish general election 2014”. *Electoral Studies*. #30. pp. 1-4.
- Bergström. Hans. 1991. “Sweden's Politics and Party System at the Crossroads”. Jan-Erik Lane. ed. 1991. *Understanding the Swedish Model*. London: Frank Cass & Co.
- Blom. Raimo. 1988. “Social Structure and Parties”. Ahme. Göran. Raimo Blom. Harri Melin & Jouko Nikula. eds. 1988a. *Class and Social Organization in Finland. Sweden and Norway*. Sweden: Uppsala, pp. 61-96.
- Bowman. John R. 2014. *Capitalisms Compared: Welfare, Work, and Business*. Los Angeles: SAGE.
- Hadenius. Stig. 1990. *Swedish Politics During the 20th Century*. 3rd ed. Sweden: Swedish Institute.

- Hagevi. Magnus. 2015. "Bloc Identification in Multi-Party Systems: The Case of the Swedish Two-Bloc System". *West European Politics*. 38:1. pp. 73-92.
- Jolivet. Annie & Timothée Mantz. 2010. "Sweden: Far-reaching reforms to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since 2007". Florence Lefresne.ed.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reforms and crisis*. Brussels: ETUI.
- Jordahl. H. 2006. "An economic analysis of voting in Sweden". *Public Choice*. 127:3/4. pp. 251-265.
- Kumlin. S. 2003. "Politiskt ansvarsutkrävande i Sverige". In Holmberg. S. & L. Weibull.eds. *Fåfångans marknad*. Gothenburg: SOM, pp. 261-270.
- Kjellberg. Anders. 2007. "The Swedish trade union system in transition: High but falling union density". In Phelan. Craig.ed. 2007. *Trade Union Revitalisation: Trends and prospects in 34 countries*. Oxford: Peter Lang, pp. 259-286.
- Korpi. Walter. 1978.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work, unions, and politics in Sweden*. London: RKP.
- Korpi. Walter. 1982. "The Historical Compromise and its Dissolution". Bengt Rydén & Villy Bergström. 1982. *Sweden: Choices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the 1980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Lane. Jan-Erik. 1991. "Interpretations of the Swedish Mode". Jan-Erik Lane. ed. 1991. *Understanding the Swedish Model*. London: Frank Cass & Co.
- Martinsson. Johan. 2013a. "Change and Stability in Issue Ownership: The Case of Sweden 1979-2010". In Stefan Dahlberg, Henrik Oscarsson & Lena Wägerud. eds. *Stepping Stones: Research on Political Representation, V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Government*. Gothenburg: University of Gothenburg, pp. 129-144.
- Martinsson. Johan. 2013b. "Economic voting in Sweden 1985 - 2010". *Electoral Studies*. #32. pp. 470-475.
- Rydén. Bengt & Villy Bergström. 1982. *Sweden: Choices for Economic and*

- Social Policy in the 1980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Sainsbury, Diane. 1991. "Swedish Social Democracy in Transition: The Party's Record in the 1980s and the Challenge of the 1990s". Jan-Erik Lane. ed. 1991. *Understanding the Swedish Model*. London: Frank Cass & Co.
- SAP[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2014. *KÄRA FRAMTID: Ett Bättre Sverige. För Alla. Valmanifesto 2014*. Stockholm: 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 Tsarouhas, Dimitris. 2013. "Sweden". In De Waele, Jean-Michel, Fabien Escalona & Mathieu Vieira.eds. 2013. *The Palgrave Handbook of Social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347-371.
- Wadensjö, Eskil. 2009. "Sweden". In Paul de Beer & Trudie Schils.eds. *The Labour Market Triangle: Employment protection,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activation in Europe*. Cheltenham, UK: Edward Elgar.

## 일간지

Aftonbladet  
Dagens Arena  
Göteborg Daily  
The Local  
Stockholm News

## 인터뷰

- Asplund, Ola 면담. Metall. head of research department. 2012.7.9.
- Asplund, Ola 면담. Metall. head of research department. 2013.6.25.
- Emerot, Oscar 면담. LO, Dept of Economic and Labor Market Policy. 2013.6.24.
- Nilsson, Roger 면담. Metall. collective bargaining 담당. 2013.7.1.
- Söder, Sven-Eric 면담. 사민당 chief of staff 역임. 2013.6.28.

<Abstract>

## **Ups and Downs of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Change of Its Class Base**

Cho, Donmoon\*

Although the SAP(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won the 2014 general election after its defeat in 2002 and 2006, its polling rate rose only by 0.4%.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AP's working class base kept being eroded along with the falling unionization rate and the worsening SAP-LO relationship.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so as to examine and explain the change in the rate of votes earned by the SAP and the Red-Green alliance.

This study was able to verify at least four points by analyzing the exit poll data of recent general elections.

First, the support rate of the SAP and the Red-Green alliance is the highest in the working class among all the class locations, which confirms that the class voting trend persists and the working class still forms the solid class base for the SAP, while the trend keeps weakening.

Second, the weakening class voting trend exacerbates the issue voting phenomenon which is conducted with the two pillars of social issues and economic issues, while the Swedes prioritize social issues rather than economic issues. As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SAP and the Conservative party converge on major policy areas including social issues among others, economic issues tend to gain more and more importance in general elections.

---

\* Department of Soci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rd, the issue owner party changed from the SAP to the Conservative party in economic issues, while the SAP still holds the issue ownership in social issues. The change of issue owner party in economic issues owes to the fact that the Swedes by and large evaluate positively the role of the right-wing government dealing with the shock of worldwide financial crisis. It confirms that economic issues can change the issue owner party more frequently than other issues.

Fourth,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of the 2014 general election were unemployment and education. Given that the ever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the recent release of poor PISA scores made an absolutely favorable condition for the SAP in the 2014 general election, the meager rise of SAP's polling rate does not allow any optimism on the part of the SAP in future general elections.

**Key Words:** Sweden, social democracy, social democratic party, red-green alliance, class voting, issue voting, economic voting, social voting, issue ownership

---

성명: 조돈문  
소속: 가톨릭대 사회학과  
E-mail: chodon333@gmail.com

논문접수일: 2015.8.7.  
수정원고접수일: 2015.8.23.

논문심사완료일: 2015.8.18.  
게재확정일: 2015.8.25.